

인구구조 변화가 거시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

Avison Young Korea Research Center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변화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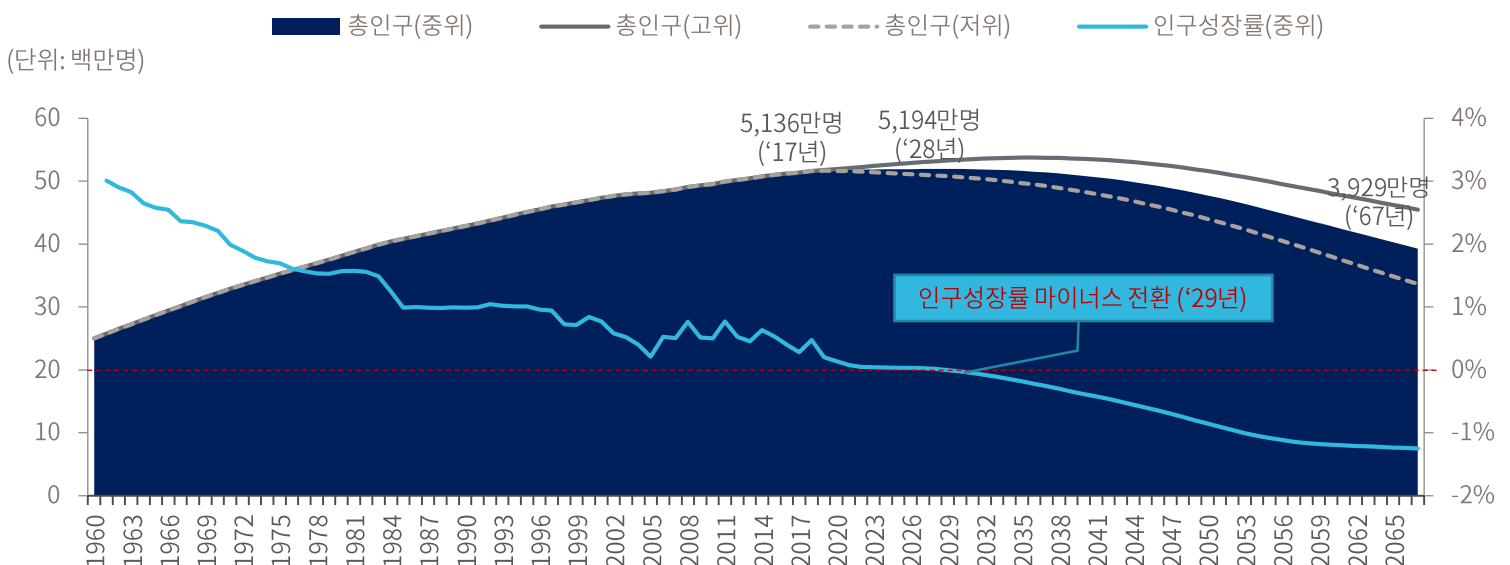
출산율 감소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이며, 이는 경제 · 사회 ·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서 인구규모는 인구의 양적 측면의 개념으로,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인구는 2017년 현재 5,136만명으로 2028년 5,194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후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2067년 3,929만명에 이를 전망이다(<그림 1> 참조). 한편, 인구구조는 인구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연령, 지역, 사회문화, 경제수준 등에 따른 인구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의 단적인 사례가 바로 <그림 2>에서 제시된 인구 피라미드이며, 2017년 현재 연령별 인구구조는 30~50대가 두터운 항아리형태이나 점차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두터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변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구규모와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서 주요하게 살펴 보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인구규모 감소에 의한 부정적 영향은 지역별로 차별적일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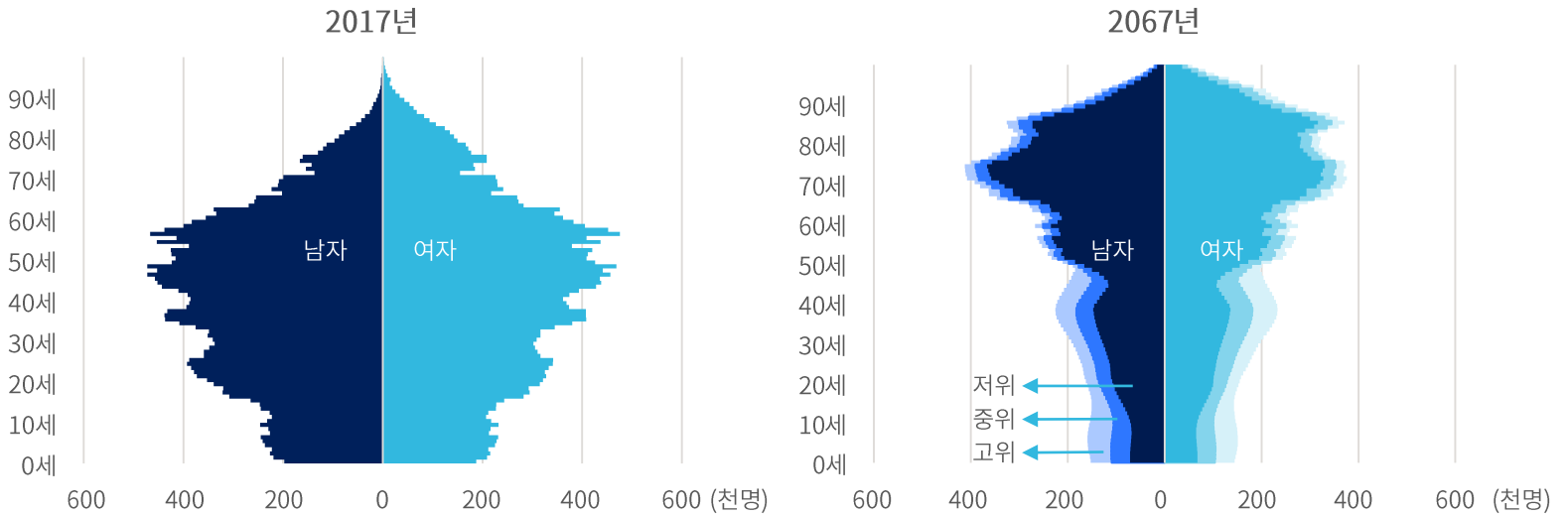
먼저, 인구규모 측면에서는 총인구 감소에 의한 시장규모 축소로 투자유인이 감소하고 궁극적으로 성장 위축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양상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쟁력을 갖춘 도시에는 인구와 일자리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에도 서울, 경기, 세종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보기술(IT) 등 주요 업종 직군이 자리잡은 지역은 인구가 빠르게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이 도청 소재지, 산업

<그림 1> 국내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예측



※ Source : Statistics Korea, Avison Young Korea Research

<그림 2> 인구 피라미드 변화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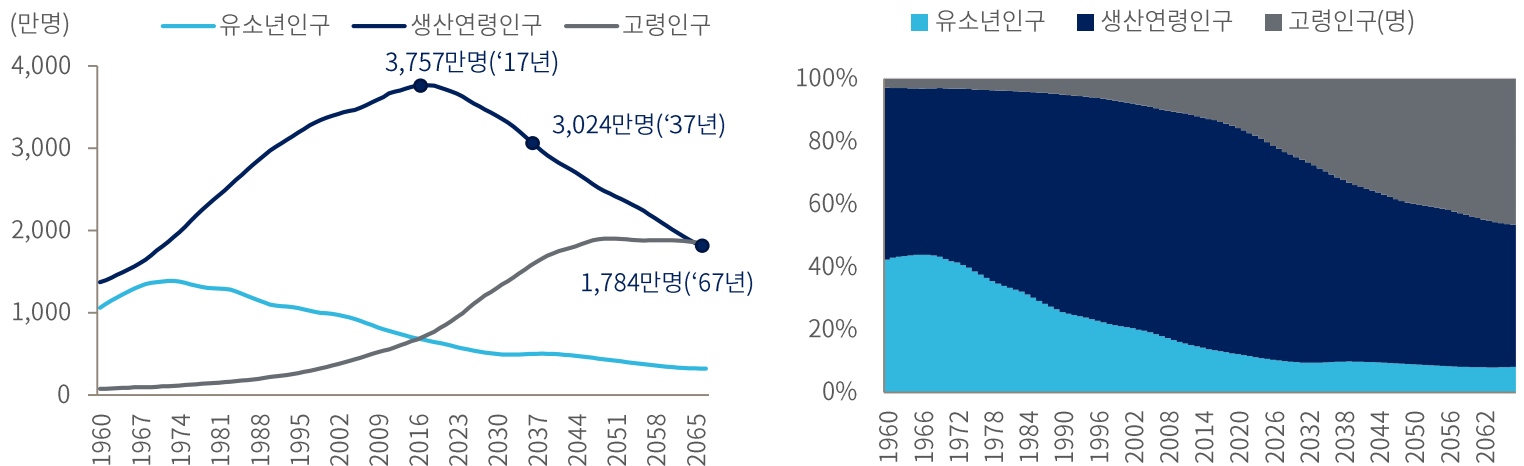
※ Source : Statistics Korea

도시, 광역대도시로 확산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귀농 등 중고령층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출에 의해 저균형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조선 및 자동차 업종 등 지방 제조업 위기는 지역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며 인구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등 일부 광역대도시에서는 원도심 쇠퇴 및 정주여건 악화로 청년층의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 관찰되고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는 고령화와 가구원 수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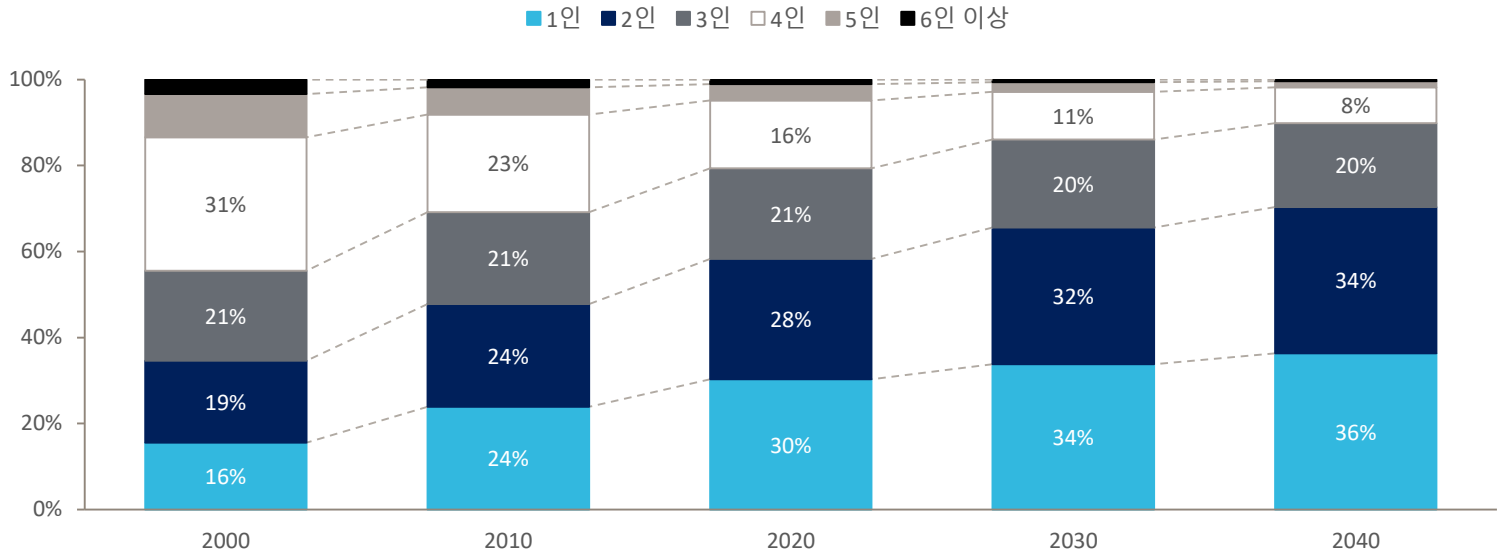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구구조 측면에서의 주요 이슈는 “고령화”와 “가구원 수 축소”이다. 국내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그림 3>과 같이 2025년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며, 2036년 30%, 2051년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또한, 출산율 감소로 인해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폭은 2020년대와 2030년대 각

<그림 3> 연령별 인구구조와 인구구성비



※ Source : Statistics Korea

<그림 4> 가구원수 비중 변화 추이



※ Source : Statistics Korea, Avison Young Korea Research

각각 연평균 33만명, 52만명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노인부양 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며, 연금 및 복지 재정부담 증대, 노동공급 감소로 인한 생산 감소, 자본축적 둔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반면, 고령화의 긍정적 기능도 일부 존재하는데,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증가와 노동기간 연장, 세대혼합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및 산출 증대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성장을 제약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대응에 따라 고령화에 의한 사회경제적 예상 경로가 수정될 여지는 존재한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사항은 가구원수 축소 이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평균 가구원수는 2.48명에서 2047년 2.03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져올 소비패턴의 변화는 서비스·유통 산업등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대비 24% 수준을 차지하였지만, 2030년 3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4>. 현 시점에서는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주 연령대가 20~30대 젊은 층 비중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추세와 함께 60대 이상 1인 가구주의 비중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주목하여 향후 거시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거시경제 측면의 영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 양상에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이 지배적일 경우, 노동공급 감소와 자본축적 둔화, 재정 부담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추계에 근거하여 장기전망을 예측하면 2020년대 평균 경제성장률은 2.0%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2030년대 1.3%, 2040년대 1.0% 내외 수준으로 둔화 예상된다(<표 1> 참고). 특히, 국내 노동구조가 일본의 상황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표 1> 시나리오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단위 : 연평균 %)

기간	경제활동참여율 적용 기준		
	한국	일본	G7
2021~2030년	2.0	1.9	1.7
2031~2040년	1.3	1.1	0.9
2041~2050년	1.0	0.8	0.6

※ Source : Korea Development Institute(2018)

감안하면, 경제성장률 수준은 더욱 낮게 전망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경제활동 패턴을 적용하여 장기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면, 2020년대 연평균 1.9%, 2030년대와 2040년대는 각각 연평균 1.1%, 0.8% 수준이다.

또한, 고령화는 장기 수요 둔화를 초래하고 이는 자산가격과 실질임금의 하락추세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의 장기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2017)에 따르면 2020년대 이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1%p 하락 시 인플레이션의 장기 추세는 0.02~0.06%p 내외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통계청의 장기인구추계 자료를 근거로 자체 추산하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0년과 2030년 각각 72%, 65% 수준으로 예측되어 향후 10년 동안의 중장기 인플레이션은 0.14~0.42%p 수준의 하방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향후 10년 생산연령인구 비중 감소에 의해 물가상승률이 전반적으로 둔화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예상되지만, 생산가능인구 수 변동과 부동산가격의 추이는 국가별로 차별적인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주택가격 측면에서 미국과 영국은 내국인 한정 생산가능인구 수는 감소했지만, 이민자 유입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주택가격이 대체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독일은 2000년대 들어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주택 공급량 감소와 더불어 낮은 이자율, 이민자 유입 등의 영향으로 지난 십년 간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인구구조 변화 특성을 지닌 대만은 투자자본 유입과 주택과세 완화 영향으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규모가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일 수 있지만, 부동산가격은 투자수요, 공급특성, 정책, 사회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가능인구만을 토대로 부동산가격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할 여지가 있다.

금리의 중장기적 추세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동력의 저하 여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생존확률이 늘어날수록 은퇴자 및 근로자 모두 은퇴 이후를 대비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으며, 이들은 노동공급 및 저축

을 늘리고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크므로 실질 금리의 하락 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세대의 위험기피성향 증대로 안전자산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채수익률은 장기적 하락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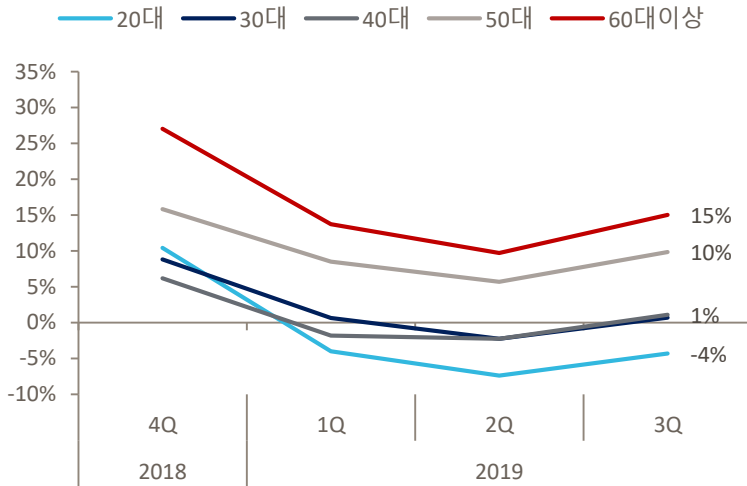
산업 측면의 영향

인구구조의 변화 양상에서 인구 고령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산업의 업종별로 그 영향이 다를 수 있다. 인구 고령화가 파생하는 노동공급 및 제품수요의 변동이 산업별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종전까지 국내 경제 전체의 부가가치에서 주요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 추이는, 서비스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농수축산업은 하락세, 제조업은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향후를 예측하면, 고령화 진전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에 따라 실질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이에 따라 경기순응산업인 제조업의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생산성 측면에서 공공행정업, 운수보관업 등 서비스업의 상대적 생산성이 2040년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한국은행, 2017).

업종을 더욱 세분화하면, 금융산업 측면에서는 고령화 진전으로 인한 저금리 하에서 간접투자 등을 통해 수익성을 중시하는 자산 비중이 늘 수 있으며, 국내 가계의 실물자산 편중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외의 경우 노년 초반까지 수익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미국 및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경우 고령층에서의 고수익 추구를 위한 금융자산 투자가 활발한 상황을 목격할 수 있다. 반면, 국내의 보수적인 투자 경향과 실물자산 선호 성향을 고려하면 국내 가계의 실물자산 선호 경향이 뚜렷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유통산업 측면에서는 고령층의 내수시장 주도 가능성이 예상된다. 베이비붐 세대의 진입으로 고령층 가구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적극적 경제활동과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수급 증대에 따라 고령층 가구당 소득과 소비성향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서울 주요 상권 소비자 연령대별 매출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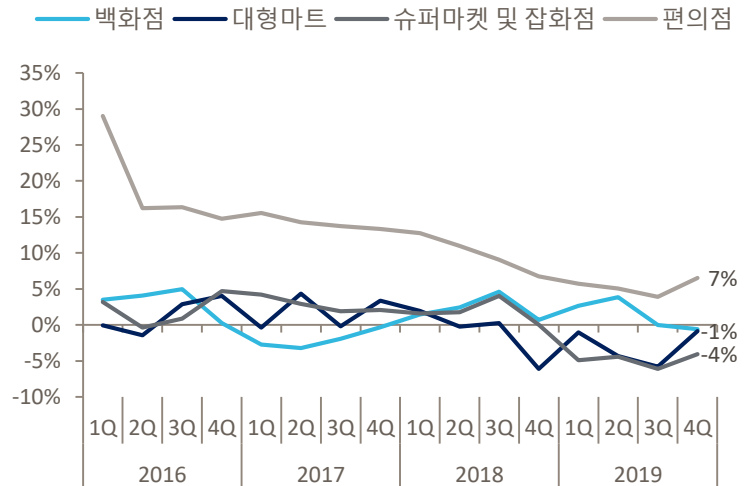


※ Source : Avison Young Korea Research

<그림 5>와 같이 2019년 현재 서울 주요 8개 상권의 소비자 매출을 살펴보면, 50대와 60대 이상 소비자의 매출 성장률이 10% 이상(2019년 3분기 기준)으로 타 연령대와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50~60대 이상 소비자들의 경우 의료, 교육, 미용 등 서비스업종에 지출하는 소비액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고령층이 선호하는 서비스와 재화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며, 고령층이 구성하는 가구형태 특성에 따른 서비스 구조 재편이 예상된다. 특히, 만혼과 비혼 사례가 늘면서 고령층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청년층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유통산업 측면에서는 가구원 수 축소에 따른 소비행태 변화가 예상되며, 소량구매 선호와 편의성 추구 등이 주요 소비트렌드로 자리잡을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대형마트 등에서 대량구매 필요성이 사라지며 손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편의점 등에서 소량 구매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6>을 살펴보면, 2019년 4분기 기준 국내 주요 소매 업체에서 편의점을 제외한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및 잡화점 등의 전통적 소매 업체의 매출이 지속적인 감소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통업계에는 주요 리테일 사업을 복합쇼핑몰, 전문점 등의 형태로 변경 진행

<그림 6> 소매 업체별 매출 변동률



※ Source : Statistics Korea

하거나 백화점의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유통업계에서는 특히 온라인 구매가 선호되는 추세에 따라, 자사 온라인 물품을 통해 고객들에게 배송하는 운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온라인 구매 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공산품 뿐만 아니라 신선식품까지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입해 집으로 배송 받는 등 구매 품목의 영역이 대폭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유통업계는 신속한 배송과 신선 제품의 품질 관리를 위한 최첨단 물류센터 구축에 투자하고 있으며, 수도권 물류창고 신규공급량은 2019년 64만평으로 2018-2019 년도 신규 공급량은 2016-2017년도 신규공급량에 약 1.9배에 이르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에비슨영코리아 리서치센터, 2019).

한편, 유통 서비스 업종에서는 편의성 추구 트렌드와 함께 ICT와 결합한 음식 배달서비스 시장이 확장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규모는 지난 5년새 8배가 증가하였다. 지난 2019년, 요기요와 배달통을 소유하고 있던 독일계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1위 어플인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9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듯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를 겨냥한 유통서비스가 각광받고 있으며, 쿠팡이츠(쿠팡), 위메프(위메프) 등 경쟁 플랫폼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어 유통 서비스업계에 귀추가 주목된다